

버스는 오지 않고...하염없는 기다림에 '발동동'

광주 시내버스 파업에 헌신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는데도 4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출근길이 1시간 넘게 걸리네요.”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11년만에 전면 파업에 나선 9일, 출퇴근, 등·하교 시간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했다.

버스 일부 노선이 운영되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나며 시민들은 버스 도착 예정시간이 뜬 전광판을 바라보며 초조한 마음을 내비쳤다. 배차 간격이 10여분 안팎인 버스 노선이 평소보다 30~40분씩 늦게 도착하는 등 지체됐고, 지각할까봐 급하게 택시나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새벽 5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중심사업구역 정류장에는 첫 차를 타려는 시민 10여 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파업 안내문이 정류장에 붙어있었지만 오늘도 파업을 진행하는 줄 몰랐으며 당황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한 시민은 평소 타던 버스 도착 시간이 뜨지 않자 다른 버스 노선을 급하게 확인했고, 결국 지하철을 타러 뛰어갔다.

김춘덕(여·70)씨는 파업 소식을 듣고 이날 새벽 5시부터 나와 버스를 기다렸다.

김씨는 “시민들은 하루 벌여먹고 살려고 새벽부터 나서는데 차 없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살겠냐”며 “출근 시간대라도 차 배차 간격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오전 7시 30분께 시민들이 몰린 남광주역에는 30여명이 오갈 정도로 분주했지만, 버스가 안제 올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또 배차 간격이 9~14분인 봉선37번 버스는 전광판에 ‘46분 후 도착’으로 안내됐고, 배차간격이 4~15분인 수원03 버스는 23분 후 도착으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고등학생·대학생들도 평소보다 20분 가량 일찍 나왔지만 등교 시간에 늦지 않을까 걱정하며 지연

평소보다 30분 일찍 새벽에 나와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30분 출근길이 1시간 넘게 걸려

비상 수송에도 시민 불편 가중

광주시 적극적인 중재 나서야

되는 버스를 기다렸다.

민정희(여·33)씨는 “평소 타는 버스가 자주 왔는데 오늘은 20분 이상 기다린다”며 “나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02번 버스를 타야하는데, 오가지도 않아 불편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20)씨도 “매일 버스 타고 학교 가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수업 시간 맞춰 가기 힘들 것 같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인 노인들은 파업 사실을 몰라 “버스가 떠엄떠엄 온다”고 주변에 묻기도 했고, 가격 부담에 택시를 탈 여력이 없어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날 광주 지역에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노인들 사이에서 “더워서 서 있기도 힘든데 버스도 안 오니 어떻게 해야 하나”는 불만도 나왔다.

퇴근길에도 시민들 불편은 이어졌다. 시민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평소보다 훨씬 늦게 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14년 6월 광주 시내버스 583대가 멈춘 뒤 11년 만으로, 첫날인 9일에는 기존 운행하던 1041대(예비 40여대 포함)의 시내버스 중 887대가 투입(운행률 85.2%)됐다. 97개 노선 중 51개 노선이 정상운행되고 46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줄었다.

광주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세워 운행률을 8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지하철을 240회에서 252회로 12회 증편 운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9일 오전 서구 양동시장역(북)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는 비노조원 운전기사 등을 투입해 비상수송에 나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행하고, 출퇴근 시간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노조원 운전기사를 투입하고, 파업 장기화로 운전원 피로가 누적될 경우 임차 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5일 임금·정년 문제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가 준법운행으로 전환한 후 사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이날부터 다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며 타 지역 대비 임금 차이 좁혀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운영되니 대폭 인상하기 어렵고 서로 이해하고 협의해야 한

다”며 “오늘저녁 70~80%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만 가중되는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노조와 회사 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도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결국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준공영제 운용 주체로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AG 수영 금메달 조희연 “5·18은 폭동” 발언 물의 사과 했지만 진정성 논란도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조희연(여·41)씨가 자신의 SNS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일 ‘스레드’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며 “반항정신으로 뿔뿔 뿜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니니 어쩌니 한숨만 내뿜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글을) 삭제하는 게 낫겠다’는 댓글이 올라왔음에도,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듣고 일어난 적도 없다”는 등 정부가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또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되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느냐”, “사과 하기 앞서서 이런 식으로 선동질 해서 돌아가기 하는 저쪽 사람들 진짜 짜진다(제책하다)”는 글도 잇따라 올렸다.

이에 한 누리꾼이 조씨를 5·18왜곡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올리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그제서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과문에도 “5·18 사건으로 인해 피해 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고 쓰여 진정성에 대한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대유 계열사 위니아전자 파산 선고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인 위니아전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부(법원장 정준영)는 지난 5일 위니아전자(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박월리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위니아전자는 지난 2023년 9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가 올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후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 채권자들은 오는 7월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채권조사는 오는 7월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위니아전자는 지난 4일 법원에 첫 회생 신청이 폐지될 경우 재신청을 하는 ‘재도의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니아전자의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재도 신청을 기각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며,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기존 파산 절차는 중단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에 본사를 둔 위니아는 1995년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체’로 김치냉장고 ‘봄’을 일으켰지만 최근 수년 사이 가전 업체 간 경쟁 심화, 매출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돌입한 지난 2023년 말 당시 위니아 전자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는 총 327명이고, 광주지역 협력업체는 3개다.

올해 1월 기준 위니아 전자를 포함한 대유위니아 계열사 4곳에 대한 임금체불 노동자는 2087명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은 1197억원이 발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체육공원 수영장 채광창 위 추락사... 지자체 25% 책임

체육공원을 산책하다 인근 수영장 채광창에 올라 갔다가 추락,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최정훈)는 A(사망 당시 22)씨 유족 2명이 광주시 북구와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22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체육공원에서 산책하다 지하 수영장 채광창의 그물망 시설물에 올라갔다가 10m 아래 수영장장으로 추락해 숨졌다.

채광창은 길이 26여m, 폭 7여m의 타원형 구멍 모양의 시설물로, 3.6m 간격의 가로 막대와 1.5m 높이의 철제 울타리, 울타리에 설치된 6개의 ‘위험’ 표지판, 그물망 등 사람 접근을 막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그물망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은 121.3kgf(중량 킬로그램)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그물망을 연결한 줄이 A씨

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A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채광창 시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있었고, 약간의 노력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철제 울타리 외에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물리적인 장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단은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북구와 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5%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로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북구 등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